

해남문화관광재단-남해관광문화재단, 관광문화 교류 협약 체결

✎ 천성현 기자 | ⌚ 승인 2023.04.05 16:24

양 지역 동반성장 발판 마련



이병욱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왼쪽)와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이 지난 4일 해남모아 플랫폼에서 열린 '영호남 지역관광 상생 교류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해남문화관광재단) © 천지일보 2023.04.05.

[천지일보 해남=천성현 기자] 해남문화관광재단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역관광·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4일 해남모아플랫폼에서 열린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관광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강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양 지역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관광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지역민들의 관광·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관광과 문화 정책 및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며 관광과 문화 행사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홍보할 예정이다.

해남문화관광재단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양 지역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워케이션 트렌드를 활용한 관계 인구 유치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지역의 매력을 담은 워케이션 상품을 구성하고 공동 마케팅 추진을 결정했다.

이병욱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 관광의 핵심지역인 남해와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체부 공모사업과 워케이션 사업 공동 추진 등 양 기관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성현 기자 cheon4122@naver.com